



열린책들/B6/628면 내외/17,000원 내외

## 열린책들, 《도스토예프스키 전집》 완간해

국내 최초로 출간된 러시아어 완역본 전집

열린책들이 러시아가 낳은 문호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문학을 집대성한 25권짜리 전집을 펴냈다. 열린책들판 《도스토예프스키 전집》의 특징은 국내 최초로 발간된 러시아어 완역본이라는 점. 소장 학자들이 주축이 돼 신세대 독자들의 감각에 맞게 우리말로 옮겼다. 더불어 권말에 수록한 자세한 작품해설도 이 전집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마침내 《도스토예프스키 전집》이 완간됐다. 지난 6월 15일, 도서출판 '열린책들'은 7년에 이르는 대장정 끝에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문학을 집대성한 25권짜리 전집을 한꺼번에 펴냈다. 이번 전집에 수록된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은 처녀작 《가난한 사람들》에서 미완의 대작 《까라마조프 씨네 형제들》에 이르는 총 35편(중단편 포함)으로, 도스토예프스키 소설이 총망라됐다.

### 소장학자들이 주축 이룬 번역진

열린책들판 《도스토예프스키 전집》의 특징은 국내 최초로 출간된 러시아어 완역본 전집이라는 점이다. 도스토예프스키 작품이 국내에 처음으로 번역·소개된 것은 1933년. 신대삼이 우리말로 옮긴 《청춘의 사랑》이 그 효시였다. 이후 상당수의 도스토예프스키 작품이 우리말로 옮겨졌고 여러 차례 전집이 나왔지만, 거개가 일본어와 영어본을 번역저본으로 삼았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열린책들판 전집은 러시아의 빠라브다출판사와 나우카출판사의 도스토예프스키 작품집을 저본으로 했다. 러시아어 완역과 함께 출판사가 내세운 또다른 번역원칙은 의역을 피한다는 것이다. 다소 투박한 도스토예프스키의 문체를 독자들이 맛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번 전집에 참여한 러시아문학 전공자는 단국대 이항재 교수, 고려대 석영중 교수 등 총 23명. 번역자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이들의 연령이 상당히 낮다는 점이 금세 드러난다. 1954년생을 상한선으로 1960년대생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1971년생도 이번 작업에 참여했다. 한자어와 문어체 번역에서 벗어나 신세대 독자들의 감각에 맞추기 위해 과감하게 소장 학자들을 번역작업에 참여시켰다는 게 출판사측의 설명이다.

전집의 작품배열은 발표연대순으로 했다. 독자들이 도스토예프스키 문학세계의 변화과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다. 자세한 작품해설은 이 전집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 중편과 장편소설의 권말에는 역사후기와 해설은 물론, 외국 비평가들의 평론을 한편씩 번역해 실어 각 작품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돕고 있다.

이번 전집출간에는 편집에 얽힌 에피소드도 풍성해 출판가의 화제가 되고 있다. 첫 번역원고가 출판사에 들어온 것은 1995년. 이때부터 출판사는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편집부는 일차적으로 번역원고와 러시아어 원서를 대조했고, 이 과정에서 기존 번역본을 짜깁기한 번역자는 교체했다. 다음 단계는 기존 국내 번역본과의 비교. 두 과정을 통해 누락됐거나 오역된 부분을 바로잡았다. 마지막 단계는 교열과정. 편집자 교열 3회, 역자 교열 3회를 원칙으로, 너무 유려하게 의역된 문장이나 어색한 우리말 표현을 바로잡았다. 교정지 두께만 대략 6m에 이르렀다는 출판사측의 설명에서 이 작업이 얼마나 지난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판형 및 판면 결정과정에도 많은 공을 들였다. 전집출간을 위해 폴 오스터의 장편소설 4종을 서로 다른 형태로 출간해 독자들의 반응을 조사했다. 그 결과 독자들의 호응이 높았던 《우연의 음악》 편집 및 제작형태로 전집을 펴냈다.

### 후속 작업도 기획중에 있어

열린책들은 전집출간에 이어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세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책을 펴내는 후속작업에 들어갔다. 가장 먼저 출시될 책은 《도스토예프스키 읽기 사전》. 도스토예프스키 작품에 등장하는 인명 및 지명, 그리고 각종 제도 등에 관한 자세한 해설을 사전형식으로 꾸몄다. 이와 함께 국내외 작가와 사상가들이 쓴 《나의 사상은 도스토예프스키로부터 나왔다》(가제)와 《세계의 사상가들이 바라본 도스토예프스키》(가제)도 준비 중이다. 《도스토예프스키 전기》와 《작가일기》도 출간을 전제로 기획중에 있다. 다음은 이번 전집의 작품목록(괄호 안은 옮긴이).

△분신 외(석영중 외) △삐체르부르크 연대기 외(이항재) △백야 외(조유선 외) △네모츠카 네즈바노바(박재만) △아저씨의 꿈(박중소) △스제뻬치코보 마을 사람들(변현대) △상처받은 사람들(윤우섭) △죽음의 집의 기록(이덕형) △지하로부터의 수기(계동준) △악어 외(박혜경 외) △노름꾼(이재필) △죄와 벌(홍대화) △백치(김근식) △악령(김연경) △영원한 남편 외(정명자 외) △미성년(이상룡) △까라마조프씨네 형제들(이대우) - 이권우 기자